

- 주요 뉴스: ECB, 긴급자산매입(PEPP) 내년 3월 종료, 경기부양을 위한 자산매입은 지속
 - 미국 12월 마켓 제조업 PMI(속보치), 1년 만에 최저. 공급 병목 완화 징후 발생
 - 영란은행, 기준금리 0.15%p 인상.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대비
 - 중국 인민은행 총재, 합리적 수준의 유동성 및 신용 공급 확대를 자신
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

주가 하락[-0.9%], 달러화 약세[-0.6%], 금리 하락[-5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오미크론 우려 및 빅테크주 약세 등이 원인
유로 Stoxx600지수는 ECB의 경기부양 의지 및 은행주 강세 등으로 1.2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ECB와 영란은행의 통화긴축이 반영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4%, 0.3% 상승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2주래 최저 수준
독일은 영란은행의 금리인상 결정 등으로 1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5.6원, +2.3원) 0.2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12/16일	12/15일	전일대비			12/16일	12/1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668.7	4,709.9	-0.87%	국채 금리 10y	미국	1.41%	1.46%	-5bp
	유럽	476.56	470.76	1.23%		독일	-0.35%	-0.36%	1bp
	중국	3,675.0	3,647.6	0.75%	CDS 5y	한국	21bp	21bp	0bp
	일본	29,066	28,460	2.13%		중국	42bp	44bp	-2bp
	한국	3,006.4	2,989.4	0.57%	위험 지표	EMBI+	-	387	-
환율	달러지수	95.98	96.51	-0.55%		VIX	20.57	19.29	6.64%
	유로화	1.1330	1.1289	0.36%		WTI유	72.38	70.87	2.13%
	엔화	113.67	114.04	0.33%	원자재	구리	429.2	418.0	2.69%
	위안화	6.3683	6.3675	-0.01%		금	1,799.4	1,776.9	1.26%
	원화	1,183.9	1,185.2	0.11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ECB, 긴급자산매입(PEPP) 내년 3월 종료. 경기부양을 위한 자산매입은 지속

- 통화정책회의에서 1.85조유로 규모의 PEPP을 종료하고 현행 월간 200억유로 규모인 자산매입프로그램(APP)의 매입 규모를 내년 2/4분기와 3/4분기에 각각 400억유로, 300억유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. 주요 정책금리는 동결
- 경기회복과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어 자산매입의 단계적 축소가 가능하다고 설명. 다만 ECB 드라기 총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의 확산에 따른 제한 조치 등이 경제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지적
- 한편 인플레이션은 내년 전망을 상향(2.6%→4.2%)했지만 2023,24년에는 1.8%를 기록해 목표치(2.0%)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. 성장을 전망은 2022년의 경우 하향 조정(4.6%→4.2%)했으나, 2023년은 상향(2.1%→2.9%)
- ING의 Carsten Brzeski는 이번 결정을 매우 신중한 테이퍼링의 시작이라고 평가하고, 향후 경기회복 지속과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점진적인 형태의 자산매입 축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발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대통령, 부채한도 확대 법안에 서명.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회피가 가능

-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2.5조달러 늘어난 31.4조달러로 조정하는 법안에 서명. 이에 채무불이행 관련 불안은 해소될 전망

■ 미국 12월 마켓 제조업 PMI(속보치), 1년 만에 최저. 공급 병목 완화 징후 발생

- 해당 지수는 57.8로 전월(58.3) 및 예상치(58.5) 하회. 일부 응답자들은 공급 차질이 일부 완화되었고, 비용 증가세도 다소 둔화되었다고 평가. 한편 같은 달 서비스 PMI(58.0→57.5) 및 종합 PMI(57.2→56.9)는 모두 하락

■ 미국 지난 주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소폭 증가. 팽팽한(tight) 노동수급은 지속

- 해당 건수는 20만6000건으로 12월 1주차 대비 1만8000건 증가. 그러나 이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발생하는 변동성 확대의 영향. 전문가들은 노동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2022년에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

■ 유로존 12월 마켓 종합 PMI(속보치), 9개월래 최저.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영향

- 같은 달 제조업 PMI는 소폭 하락(58.4→58.0)했으나 서비스 PMI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(55.9→53.3). IHS의 Chris Williamson은 유로존 경제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다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평가

■ 영란은행, 기준금리 0.15%p 인상.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대비

-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0.1%에서 0.25%로 상향 조정. 오미크론 등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면하여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. 또한 향후 물가 안정을 위해 완만한(modest)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부연
- 이번 결정은 금리동결을 전망한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며, 영란은행이 그 만큼 인플레이션 위험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. 캠브리지 대학의 엘 에리언은 영란은행이 최근 인플레이션의 역학을 이해하고 대응에 나섰다라고 평가

■ 중국 인민은행 총재, 합리적 수준의 유동성 및 신용 공급 확대를 자신

- 이강 총재는 해당 조치를 통해 경제가 단기적 하방 압력에도 강인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.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적정한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고 첨언

■ 노르웨이·멕시코 중앙은행, 기준금리를 인상. 터키는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

- 노르웨이 중앙은행(0.25%→0.5%)과 멕시코 중앙은행(5.0%→5.5%)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,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(15%→14%). 한편 인도네시아(3.5%), 스위스(-0.75%), 대만(1.125%), 필리핀(2.0%)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2/16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2월 산업생산(전월비): 0.5%, 11월(1.7%), 예상치(0.7%)
- 미국 11월 건설허가건수(만건,연환산): 171.2, 10월(165.3), 예상치(166)
- 미국 11월 주택착공건수(만건,연환산): 167.9, 10월(150.2), 예상치(156.5)
- 미국 12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: 15.4, 11월(39), 예상치(30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2/17 현지시각 기준)

-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,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, 독일 12월 Ifo 경기기대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글로벌 주식 및 채권시장, 인플레이션 기간의 과소평가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Inflation: markets underestimate longevity of price rises)

- 주요국 주가는 연준의 긴축 강화 결정에도 상승 마감하며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,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.4%대로 2018년 대비 절반 수준. 이는 주식과 채권시장 모두 인플레이션이 향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
- 일각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, 이는 지속적인 코로나 변이 출현 등 팬데믹 기간의 과소평가 위험이 내재. 또한 인플레이션 기대와 임금상승은 상호 악순환을 형성하여 인플레이션의 영속화로 연결될 우려
-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, 동시에 과거와 같은 저물가 및 고성장 시대로의 복귀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

■ 미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, 물가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불가피 - The New York Times

(The Year of Inflation Infamy)

-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은 공급망 문제에 일부 기인하지만, 일자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임금인상, 물가상승 기대 등이 보다 주요한 원인. 의회의 교착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재정부문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책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통화정책이 중요한 상황
- 충분한 수준의 금리인상은 물가를 낮추고 경제활동 둔화를 초래하여 운송문제 등도 해결 가능하지만 경기후퇴와 실업 증가를 초래할 소지. 이에 고물가 지속 시 연준은 금리인상을 시행해야 하나 유연한 대처로 성장 둔화를 막는 것이 중요

■ 미국의 주요 은행, 기준금리 인상 시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수익 증가 기대 -WSJ

(How Banks Win When Interest Rates Rise)

■ 연준의 통화정책, 인플레이션 제어에 불충분.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- 블룸버그

(Federal Reserve Makes a Welcome Pivot But Has More to Do)

■ 주요국 긴축정책, 완전 고용의 기준이 낮아질 소지 - WSJ

(Risk for Markets Isn't Higher Interest Rates, but Lower Employment Goal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